

【서식2】 자기소개서

| | | | | | |
|-----|--|-----|--|-----|--|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
|-----|--|-----|--|-----|--|

- 서울의 달동네 생활

내가 시골에서 상상하던 서울은 높은 빌딩과 화려한 네온사인이 있는 잘사는 사람들만 사는 동네라고 알고 있었는데, 막상 내가 도착한 곳은 오르막길을 오르고 또 오르는, 연탄을 지게에 짊어지고 오르는 그야말로 깡촌 구석탱이였다. 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 겨울에는 물동이를 짊어지고 물을 길어 와야하는 그런 열악할대로 열악한 영등포의 어느 달동네였다. 우리 식구 6명이 기거하는 방이라고 안내받은 곳은 비가 오면 방에서 물이 뚝뚝, 화장실이 없어 급할 땐 인근 초등학교로 가야하는 그야말로 말로 표현하기 힘든 곳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어느 겨우 날 밤,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방 한가운데에 쥐가 주먹 만하게 구멍을 뚫어 놓아 밤새도록 연탄가스가 스멀스멀 새 들어 왔던 것이었다. 만약 그날 밤 영양실조로 다 죽어가던 3살배기 막내 여동생이 잠을 깨어 울지 않았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여섯 식구 중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인생이란 참 기구하며 알 수 없는 숙명의 굴레에 연결되어 있다는 강한 느낌이 생겼다.

- 육군 소대장으로 G.O.P 철책선 근무

부모님의 지극 정성과 나의 꾸준한 노력으로 만년을 이겨내고 나는 서울시내 모대학 사범대학 영어교육학과에 진학할 수 있었다. 학창시절 동안 주경야독의 성실함으로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번갈아가며 악전고투한 결과 최고의 성적으로 장학금도 받았다. 지금와서 하는 말이지만 나에게는 다른 학생들이 부모님께 용돈받으며 데이트하고 즐기는 평범한 대학생들은 사치였으며, 어떻게 하면 우리 4형제가 무난히 대학을 졸업하느냐가 인생 최대의 과제였다. 그래서 두 살 터울의 남동생이 대학을 다니게 하려면 내가 R.O.T.C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학창시절 학업과 R.O.T.C 장교 교육을 동시에 받은 후 졸업과 동시에 강원도 철원에 있는 G.O.P 철책선에서 소대장으로 군 생활을 하게 되었다. 낮과 밤이 바뀐 초긴장의 생활 속에서도 분단 조국의 숙명을 온몸으로 느끼며 부대원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쏟아 때로는 엄하게 또 때로는 따뜻한 아버지처럼 대하여 지금도 그때 그 전우들과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 전우들의 눈물겨운 협력과 단결 덕분에 전역할 무렵 사단장으로부터 최우수 부대표창을 받은 적이 있다.

- 삼성 및 삼성반도체 동경 주재원 생활

나는 대학시절 학업과 군사교육을 병행하느라 힘들었지만 대학교 전체 학기 평점을 'A'로 유지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우리 동기들 중에 나처럼 대학 4년동안 전체 평점이 A인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 R.O.T.C 군사교육 때문에 공부를 못했다는 핑계는 대고 싶지 않아서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주경야독의 어려움 속에서도 내 앞에 놓인 높은 산을 오르고 나면 반드시 밝은 태양이 저 너머에서 나를 향해 미소 짓고 있으리라는 확신을 갖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다. 그 결과 졸업하기도 전에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에 합격하는 영광을 얻었고 군대 제대 직후에 삼성으로 복귀하여 미주 및 일본에 반도체를 수출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다. 아침에 출근 시간보다 언제나 한 시간 일찍 태평로에 위치한 삼성본관으로 출근하여 사무실의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킨 후 내 자리에 앉아 전날 밤새도록 전 세계에서 도착한 산더미처럼 쌓인 온통 외국어로 된 FAX를 보고 있노라면 내가 대학에서 배운 것은 세계 초일류 기업인 삼성에서 유능한 무역인이 되는 데는 너무나 미흡하다는 생각이 불현듯 내 뇌리를 스쳐 가곤 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올려대는 전화를 받으면 저편에서 울리는 말들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 등 전부가 다 외국말이었다. 그날부터 나는 '자, 지금부터 운명원이의 숙명을 바꾸는 대역사를 시작하리라! 그 첫째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집에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종로의 외국어 학원에 가서 영어회화를 공부하고 바로 출근하여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는 또 그 외국어 학원으로 가 일본어 회화를 듣고 퇴근하는 생활이 시작되었다. 이런 각고의 노력 끝에 삼성 어학 연수 센터에서 실시하는 어학 시험에서 영어와 일어 1급을 따게 되었다. 동기들 중 이렇게 입사 1년여 만에 영어와 일어 두 개를 동시에 1급을 딴 사람은 몇 명 안 되었다고 한다.

| | | | | | |
|-----|----------|-----|-----|-----|-------|
| 소 속 | 중앙여자고등학교 | 직 위 | 교 사 | 성 명 | 윤 명 원 |
|-----|----------|-----|-----|-----|-------|

-. 삼성 및 삼성반도체 동경 주재원 생활

삼성의 동경 주재원으로 나의 첫 방문지는 소니의 아오모리 공장!
그 당시 일본 소니라는 회사의 명성은 감히 근접할 수 없는 전 세계에 지점을 거느린 초일류 기업이었다. 이런 명성을 생각하건데, 공장의 규모가 어리어리하리라 상상했는데, 아모모리 공장에 공장에 도착했을 때 내가 본 공장의 모습은 허름하기 짝이 없었다. 우리네 시골집 같은 작은 곳에서 나를 맞이한 사람은 50이 넘는 반백의 아저씨였다. 그는 공장 문 앞에서 나에게 인사를 하는데 허리를 그야말로 90도로 하고 거의 3분간 구부리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그들의 예의에 놀랐고 곧이어 들어간 공장에서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로봇뿐이었으며 마지막 공정에서 불량률이 0.17%였다. 아! 이것이 일본의 기술력이란 말인가? 그 당시 우리 삼성의 반도체 실력은 세계 13위에 불과했으며 이제 겨우 64 KDRAM을 만들어내는 수준! 나는 그 후 더욱 강인한 정신력으로 무장하고 ‘그래 나는 반드시 에스키모인에게 냉장고를 팔아보이겠다’는 각오로 뛰고 또 뛰었다. 그 후 그 야마모토 과장은 나의 멘토이자 친구가 되어 많은 영업 노하우를 알려주어 최초로 일본에 백만불어치의 삼성반도체 칩을 수출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일본시장도 대한 남아의 기개로 개척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분투하여 우리 삼성맨들은 드디어 세계 탑 10 속에 우뚝 올라서는 기염을 토했다. 일본시장에 첫 백만불 수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자 삼성 본사의 이병철 회장을 비롯한 모든 삼성맨들의 가슴속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충만해져서 용기백배하게 되었다.

-. 드디어 선생님이 되다. 학년부장, 외국어과 부장, 담임교사, 영어교사로서의 사명감을 갖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소위 천직이라는 직업을 얻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내가 바로 먼 길을 돌고 돌아 나의 천직이 교사라는 것을 깨닫고 난 후 용기를 내어 학교로 돌아온 장본인이 아니겠는가? 담임을 맡은 첫해부터 나는 우리 학교 여학생들의 우상이 되어 ‘감자 선생님’이란 별명으로 불리우며 매일 아침 등교하면 내 책상 위엔 이름 모를 제자들의 꽃 편지와 장미꽃 한송이가 놓여있곤했다. 그야말로 나의 교사로서의 삶은 무릉도원이나 다름없었다. 나는 삼성맨 시절과 똑같이 학생들보다 매일 한 시간 일찍 등교하여 교무실 창문을 모두 개방하여 환기를 시키고 그날의 수업 준비에 몰두했다. 모든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교사가 된 지 어언 20여 년이 다 되어 가는 중이었다. 그동안 한해도 빠지지 않고 담임을 맡아왔다. ‘역시 교사의 꽃은 담임교사다’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담임하면 많이 힘들지만 내가 맡은 학생들이 있고 그들과 함께 진로지도, 생활지도, 교수지도 등 모든 활동들을 하며 1년을 보내다 보면 마치 내 자식보다도 그들을 더 많이 생각하고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도 그럴 것이 나에게서는 그들이 한 해의 담임교사일지라도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어쩌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일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도 먼 옛날 가르쳤던 아이들이 중년 아줌마가 되어 찾아오곤 하는 것을 보면 내가 담임교사의 역할을 게으르게 하지는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영어 교사로서 나는 언제나 우리 제자들이 너무 좋은 발음과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이라도 해외에 나와 있다고 생각하여 자신이 생존하기 위해 온갖 몸짓을 섞어서라도 한 두 단어를 끼워 맞춘 실전 영어를 구사하라고 강조한다. 외국어부장으로 영어전용교실을 2년여에 걸쳐 조성하여 영어만을 구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며, 학년부장으로 여러 담임교사와 관리자간의 다리 역할을 매끄럽게 수행해낸 것 등이 있다.

.. 하노이 한국 국제학교에서 국제교육부장으로 근무하다. 베트남 청년들을 위한 한글학교 운영하다.

(국립 하노이 대학과 M.O.U 체결)

한국의 고등학교에서 20여 년이 넘도록 근무해오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된다. ‘내가 지금까지 해 왔고 또 앞으로도 하게 될 교육이 진정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내가 한국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가본 외국이란 곳이 겨우 일본, 캐나다 정도인데 나의 경험은 우물 안의 개구리가 아닐까?’ ‘뭔가 내 가슴속 저 깊은 곳에서 답답하다는 생각과 함께 교육도 좀 더 넓은 곳으로 가서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느끼고 싶었다. 이런 화산처럼 폭발하는 열정으로 외국에 위치한 국제학교로의 문을 두드리게 된다.

| | | | | | |
|-----|--|-----|--|-----|--|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
|-----|--|-----|--|-----|--|

그 첫 번째 학교가 바로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하노이 한국 국제학교였다. 물론 가고 싶다고 다 갈 수 있는 곳도 아니었지만 나는 외국어에 관심이 많았거니와 베트남어를 미리 공부하는 등 준비를 차근차근 했던 기억이 난다. 이런 삼성맨 시절 회사에서 배운 치밀한 준비성 덕분에 파견시험에 무사히 합격하여 가족들을 데리고 2011년부터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서 파견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나는 어느 날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야간에 베트남 청년들을 위한 배움터를 우리 학교 교실을 이용하여 운영해 보자고 건의하였다. 그는 나의 생각이 매우 좋다고 하며 적극적으로 밀어 주었고, 나를 운영자로 임명하여 전권을 맡겼다. 베트남 현지에는 수많은 청년들이 한국에 산업 연수원생 자격으로 5년간 파견되고 싶어하고, 부유층 자제들은 한국의 대학으로 유학 오고 싶은 열망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런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산이 바로 유창한 한국어 실력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노이 시내에 있는 한국 대사관 앞에는 한국어 시험인 TOPIC을 치기 위해 끝이 없는 장사진을 이루는 것이었다.

-. 상해 한국국제학교 12학년의 진로 진학 담당하다. 상해에 위치한 각국의 국제학교를 방문하고 교육적 유대를 강화하다.

나는 상해한국국제학교에 도착하자마자 25년여간의 다양한 교육경력을 인정받아 12학년 학생들의 대학 입시를 위한 진로 부장의 사명을 받고 활약하게 된다. 우리 학생들은 중국에 있는 미국학교, 영국학교, 캐나다학교 등에서 11학년까지 공부하고 12학년 때 우리 학교로 전학온 학생들이 많았다. 그들은 주로 12년 특레나 3년 특레로 한국 국내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하려는 학생들이었다. 나는 그들을 위해 한국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을 상해로 초청하여 대학 입시 설명회를 여러 차례 실시했다. 설명회 중 많은 질문과 궁금증을 해결하여 많은 학생들이 서울대, 연대, 고대 등 유수의 대학으로 진학하여 역시 중국에서는 북경한국국제학교와 더불어 쌍벽을 이루고 있음을 또 한 번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상해에도 중국 정부에서 의도적인 정책에서인지는 잘 몰라도 각국의 국제학교들을 한 섹타에다 모두 모아 두었다. 울타리도 없어서 미국학교, 영국학교로 얼마든지 넘어가서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수업하는지 두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고 자유롭게 그 학교 교사들과 교육에 대해 토론을 벌일 수도 있었다. 나는 이런 현상에 착안하여 국제학교간 교사교류, 학생교류를 제안했다. 반응은 하노이에서와 마찬가지로 뜨거웠다. 교장에게 건의하여 아예 10여개의 국제학교들을 묶어 ‘상해 국제학교 연합’이란 조직을 결성하자고 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교사와 학생을 교환하고 동아리 활동의 경우에는 중국학교와 한국학교, 미국학교와 한국학교, 일본학교와 한국학교 등으로 연합반을 만들어 활동하기도 했다.

-. 남해 보물섬고 교장에 지원하게 된 동기

저는 남해군 남면 당항리 태생으로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 조부모님 곁에서 소를 먹이고 겨울 땔나무를 하던 나뭇꾼이었습니다.

상경하여 교직 생활을 한지도 어언 30년이 되어가는 이 때, 고향에 대안학교가 생긴다는 소식을 듣고, 어린 시절 저의 책과 노트가 되어 주었던 산과 들에서의 추억을 후학들과 함께 진짜 사람을 만드는 교육인 인성교육, 자연교육, 자발성교육으로 풀어보고 싶은 강한 열망을 느끼게 되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중국 상해와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국제교육 시절 주변에 즐비한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국제학교에서 하는 대안교육의 모습을 보고 우리 나라에도 접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구요.

